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다음 주일(10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나눔 열매들을 가정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 추수감사절 찬양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 머리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용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예지 청년 · 김이레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해분 권사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4 호

2024년 11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요르단에서 온 편지

살롬~ 가을의 문턱에서 문안드립니다. 한국도 쌀쌀하겠지요?~ 해발 천 미터인 이곳도 조석으로 가을 날씨를 느낍니다. 반가운 계절을 맞으며 요르단 소식과 기도제목 나눕니다.



1. (난민선교) 그간 정들었던 시리아난민 '아부라술' 가정이 10년 만에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4명 자녀들이 영어 공부반 제자였으며, 첫째 딸 마이야미는 장래가 촉망되는 저희 센타 장학생이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후에 이민날짜가 급히 잡혀 환송파티도 못하고 보내 아쉬웠

지만 주의 인도하심과 복된 삶을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아랍교회사역) 암만에서 섬기는 '우무데이나교회'입니다. 아랍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강건하며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제가 말씀묵상 나눌 순서입니다. 임선교사가 말씀과 사랑으로 아랍교우들을 위로하며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소서.



3. (성경공부모임) 최근에 주님을 영접한 '아부무함마드' 아저씨와 교제 나눕니다. 올해 80이신데 정정하십니다. 남은 삶의 여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이렇듯, 중동에서 주님께 나오는 영혼들이 계속 이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4. (중동에서 짬뽕~!) 동역자 가정에서 짬뽕을 만들어 대접해 주셨습니다. 요르단에서 짬뽕이라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맛도 일품이지만 그 마음에 감사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매운맛 주고받는 우리는 자랑스런 한국인입니다!



5. (가족) 아내가 급성충수염으로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특히 여러 동료들이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기도해주시는 후원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겪고 나니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섬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받은 은혜 이 땅 영혼들과 더 기쁨으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6. (중동전쟁) 지난해 10월 7일 발발한 가자 전쟁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전쟁은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란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요르단은 이 나라들 사이에서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려드린 마지막 사진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이 저희 집 상공을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길, 확전되지 않길, 이 땅과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7. 환절기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가을도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살롬 살롬

<임채정, 손희정 선교사 드립니다>

한주간의 말씀

“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
< 로마서 1장 7절 말씀 >

< 수요일기도회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00, 536 / 338

기도 :

성경 : 에스겔 4장

제목 : 에스겔이 멸망을 전하다

1-3 예루살렘 성읍의 포위 예언

해석: 하나님의 징계에 예외는 없다.

적용: 신앙적 예민함을 가져야 한다.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4-8 이스라엘의 죄악 원인

해석: 사람은 죄를 범하는 특성(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 하려는)을 가지고 있다.

적용: 공의로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과 죄 문제가 있으면 해결(회개)하자.

9-17 심판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

해석: 에스겔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먹게 하신 이유는 머릿속에 남게 하여 이방의 나라에서 이방의 문화(선진)와 힘(재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신앙을 잃지 않는다.

성서일기

염려가 많습다면!

요즘 몸이 피곤하고 잠도 푹 못 자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퇴 후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끔 강사로 가서 만나는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안한가 보다.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며 불편한 듯 신호가 왔다.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친구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앗! 붉은 항암제 생각이 나면서 매우 불안해졌다. 즉시 병원에 가 보고 잠시 근심한 것을 회개했다. 마귀가 내가 평안치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을 잊은 것이다.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

찬송으로 위로함을 받아 받은 복을 세어 보았다. 손주를 돌볼 수 있고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계들이 잘 자라 알을 잘 낳아 손주들이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남편이 나를 보고 웃고 좋아하고, 발도 만들어 주고 찜질방을 뜨끈하게 불을 때우고, 내가 해준 반찬도 맛있게 잘 먹어 주어 감사합니다. 딸이 엄마 집에 자주 와서 잘 먹고 잘 쉬고 가니 감사합니다. 이웃이 내가 없을 때 우리 개밥을 주고 고양이 밥도 챙겨 주어 감사합니다.

무가 쑥쑥 자라 각종 반찬 해 먹고 이웃도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호박이 주렁주렁 잘 달려서 맛있게 볶아 먹고, 친구들에게도 수시로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구절초가 하얗게 하늘하늘 피어 감사합니다. 된장이 맛있게 익어 동생에게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싹사랑방 이운순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136 : 1-3
9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태복음 6 : 12-13

44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로마서 1 : 1-7

행 복 (90)

“ 은혜와 감사 ” 정재훈 목사

설교자
새작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436

438(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김영화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감사

은혜와 로마서. 교회사에서 로마서에 깊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안에서 종교개혁신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은혜의 박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은혜의 교리’를 기독교 안에 정착시킨 사람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 선물, 호의, 감사와 같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맥락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카리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결되는 단어로는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은혜와 감사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감사.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을 은혜로 선물해 주시지만 그 중에 최고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삶에서 소중한 것들은 당연하게 여겨져서 소홀하게 대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뿌리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박태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10월의 마지막은 바로 가을여행이었습니다. 이번 가을여행지는 바로 안동이었습니다. 2박3일간 떠나는 가을여행에는 식사준비를 도와주실 부모님들과 같이 가는데 이번에는 모든 엄마들과 아빠 한 분과 오빠 한 명이 같이 갔습니다.

이번 가을여행은 권정생어린이문학관과 하회마을 그리고 낙동강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안동에 와서 다들 너무 너무 잘 지냈는데 가장 좋았던 곳을 물었을 때 제일 좋은 곳으로는 하회마을에서 본 탈춤공연을 1등으로 뽑았습니다. 하회마을에 가서 우선 세계탈박물관에서 전시를 보고,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봤습니다. 1시간이나 되는 시간과 옛날을 풍자하는 극이라 아이들에게 어려울 것 같았지만 얼마나 재밌어하고 좋아하는지, 그날 저녁식사 후에 탈춤공연을 재연하고, 새로 탈춤을 창작해 공연하며 놀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참 따뜻했습니다. 꾸러기들 여기저기를 가는데 사람들이 꾸러기들이 예쁘다고 칭찬도 하시고, 간식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여행을 도와주신 꾸러기 가족들 덕분에 너무 너무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어린이소식은 세 가지 입니다.

이번 주는 점점 쌀쌀해지는 것을 느끼며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슬슬 온풍기를 켜야 하기에 교실마다 걸려 있는 냉온풍기를 전문 업체에 맡겨서 청소를 했습니다. 도심 보다 흙먼지가 많은 곳이고 습한 곳이라 어린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청소를 하고 나니 얼마나 개운한지요.

어린이 6학년들의 진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앞날을 계획하며 신중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멋쟁이에 원서를 냈고 입학면담도 거의 마쳤습니다. 긴장하며 면담을 기대하는 어린이들이 귀엽기도 해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학년말 여행을 2주 앞두고 장소를 정하느라 담당선생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대충 맥락이 나오고 있는데 세부적인 준비로 더 바빠지겠지만 한학년을 잘 갈무리 하는 여행이 되기 위해 교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할 것입니다. 기도로 어린이를 응원해 주십시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10월이 다가도록 날씨가 오락가락 합니다. 멋쟁이들의 패션도 반팔반바지부터 패딩까지 다양합니다. 오색찬란한 산등성이의 빛깔과 더불어 더없이 높고 푸른 하늘이 영락없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을 즐기기 위해 목요일 열린수업 시간에는 고모리 저수지로 다함께 외출을 나갔습니다. 학년별로 산책하며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고, 잠시 저 멀리 하늘의 몇 점 안되는 구름을 보기도 하고, 오리들의 헤엄질에겐 눈길도 주고, 카페에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떠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종강발표회가 눈앞에 보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학생 전체회의가 열렸고, 대본위원회가 꾸려져 차근차근 준비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멋쟁이 감사제'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열어, 학년별로는 찬양을 준비하고 개별적으로는 문학이나 그림으로, 내면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지난 마라톤의 시상식이 가족회의 중에 있었습니다. 수상자는 박지호/최시현/윤치후, 그리고 진나우/최정원/최을 멋쟁이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참 멋있었습니다.

6학년의 수시면접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수능과 졸업여행 등도 코앞에 있어, 멋쟁이들의 기도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사랑방이 가장 예뻐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주변 나무들도 알록달록 색깔 옷을 입고 가을 햇볕아래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요즘입니다. 반짝이는 햇살에 흔들리는 단풍잎을 보면 마음도 설레고 어디론가 훌 떠나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아~~날이 이렇게 좋은데...어디든 가야하는데..”라는 말을 달고 지내다 드디어 멋쟁이들과 가까운 고모리 저수지둘레 길로 단풍놀이 겸 산책을 다녀올 기회가 생겼습니다.

완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고모리 저수지는 여전히 아름답고 풍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라 중장비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다른 한쪽은 카페와 펜션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 너머의 풍경을 봐야 그나마 단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지 감격스러운 단풍놀이는 하지 못하고 카페에서 먹은 음료는 너무 달아서 다 먹지도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리 감흥이 없지? 좀 시시하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 얼마 전에 공동체 마당에서 우연히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일상의 지루함에 대해 한탄 아닌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단에서 화초를 손보시던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설악산 보다 이쁘다고 하더라~~. 우리 복이야 복!! 이런 곳에서 매일 살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사랑방이 너무 아름다워서였구나.

매일 보는 풍경이라 그러려니 했던 사랑방의 가을이 다시금 눈에 들어오고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단풍놀이하기 딱! 이라는 것을 세삼 깨달으며 오늘도 마당으로 가을을 만끽하러 나갑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449장, 540장

성 경 : 로마서 5장 1-8절

말 씀 :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핵교리 개정선언을 하면서 세계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상황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안보가 큰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장 상황이 멈출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공협 모임을 위해>

* 종교개혁 주일을 지나면서 교회와 공동체가 개혁 교회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춘천에서 모이는 에제르(여성회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가을 여행 중에 있는 꾸러기학교를 위해서

* 입원 중에 있는 김용필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10월의 마지막 날에 10월달에 생일을 맞은 식구들의 생일 축하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진 전체모임에서 지체들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도 하니 먼 곳에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사랑방의 한 식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공협 여성 지도자 모임인 에제르 모임이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는 여성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관 습기 문제로 계속 해결책을 찾기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원인을 찾아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장영미 전도사>